

특별기획

군산보건소, 불법 담배광고 조사

군산시보건소가 오는 28일까지 담배 판매업소 1246곳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광고 여부를 조사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경우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담배 판매점의 경우 담배 광고가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도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여부, 불법 담배광고 정비, 담배 진열위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흡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 철거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흉물스럽고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무연고 노후 위험간판에 대해 철거에 나선다.

이번 간판 철거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위험간판을 철거해 강풍에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의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30개의 철거 대상을 확정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 된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며 이달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철인 건축경관과장은 "내년에도 자체조사 및 시민의 신청을 받아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을 철거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늘푸른도서관, 아동독서회 참가 모집

늘푸른도서관에서 2017년도 상반기 1차 아동독서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동독서회는 1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독서지도사와 함께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자 운영된다.

아동독서회는 '새싹독서회(초등1~2학년, 15명)', '늘푸른독서회(초등3~5학년, 15명)', '왕글리시독서회(초등2~4학년, 15명)'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또는 늘푸른도서관(☎454-5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수청

# 내항 침몰 선박 직권 인양

## 2차 해양사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1억 3000만원 예산 확보

침몰된 선박을 선박운행이 빈번한 항로에 방치하면서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해수청이 해당선박을 직권으로 인양기로 했다(본부 10월 24일자 8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군산시 해방동 등백대교 인근에 침몰한 314톤 규모의 바지선에 대해 2차 해양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직권으로 인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은 침몰 선박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금강하구둑 개방에 따

른 빠른 물살과 조류로 인해 유실·이동 가능성이 있으며, 소형선박에 의한 2차 충돌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직권인양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해수청은 별도의 '침몰선 제거인양 처리용역'을 실시한 결과 9300만원의 인양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3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침몰된 바지선은 지난 9월19일 내항에 정박해 있던 중 정박용 줄(계류색)이 끊어지면서 조류를 타고 이동 등백대교 앞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항하는 어선들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더욱이 침몰된 바지선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시에는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만조시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식별이 불가능해 통항 선박들의 2차사고 우려를 안고 있었다.

한편 해수청은 침몰선박의 선주에게 인양명령을 내렸으나 선주가 인양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28일까지 인양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농축산검역 호남지역본부 외래 병해충 예찰학교 운영 '눈길'

최근 국제 교역량과 여행객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새로운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와 외래 병해충 예찰학교를 운영해 시선을 모았다.

수입식물에 대한 국경검역은 농생명 산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가 지역 특화적인 새로운 방안으로 '외래 병해충 예찰학교'를 통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외래 병해충 예찰학교'는 식물병해충 전문가 초청 세미나 4회, 수출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가 교육 12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 6회, 다문화가족 교육 12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접 제작한 수출입식물검역 절차 및 수입금지 병해충 등 소개 교육교재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김도순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기조에 발맞춰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나라 자연환경과 농업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외래 병해충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소방서, 대형마트 소방체험교실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최근 홈플러스 익산점에서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안전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 기초 소방상식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출입하는 대형마트를 찾아 시민에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한 것으로 홈플러스 4층 문화센터 앞에 체험코너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시범 및 체험, 공기호흡기 착용 체험 및 사용법 교육, 기초소방시설 체험, 소방복장 착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언론매체 보도된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배우기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겨울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체험장은 찾은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체험을 통해 소방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지역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앞장

###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일대 환경정화운동 실시

전 세계에 걸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최근 영국 여왕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수상 이후 다양한 이웃사랑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익산지역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 140여명은 최근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일대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성도들은 오전 10시부터 산업단지 인근 도로변 약 1.5KM 구간에 걸쳐 환경운동에 나서 100리터 봉투 1000개 분량의 낙엽과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국가산업단지 일대에는 가로수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었지만 지역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곳곳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바람에 날려 온 오물들이 산재해 있었다.

성도들은 수거봉투를 들고 낙엽을 중점적으로 수거하며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행인들이 먹다버린 캔, 빈병 등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공단 거리 미관을 살리는데 집중했다.

하나님의 교회의 환경정화운동



익산지역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 140여명은 최근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업단지 일대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횡수만도 3369 건에 달한다. 환경운동가들도 이러한 참여활동은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변화하고 환경정화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정기적인 정화 활동은 지역의 환경개선에 앞장설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박진민(남중동)씨는 "간혹 공단 지역을 지날 때 관리되지 못한 도로와 인도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내 자신도 기쁘다. 내 고장 내 동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의미에서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특권 도시

풍광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